

법 어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풍요로운 10월을 맞이하면서, 108순례단의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기원하는 자리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계절에 맞추어 청명한 마음을 수확하는 훈훈한 자리가 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일구월심 정진해 오신 혜자스님과 108산사 순례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 지역간 분쟁을 넘어 계층간의 갈등, 그리고 개인의 소외와 가족의 해체, 자살의 증가 등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표출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구촌 공동체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비와 나눔의 큰 뜻으로 함께 손잡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자로서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책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설하셨으며, 자비와 보시의 실천을 통한 평등 공법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완성하여 이 땅이 불국정토로 실현되기를 서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역대 조사 선지식들과 사부대중들의 위법망구의 시대적 노력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 자비의 나눔 불사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 불사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과거 우리가 가난의 고리를 끊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굶더라도 자식들만은 가르치겠다는 교육열의 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계발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를 건립하여 주고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십시일반 나누는 마음으로 고귀한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의 손으로 세운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근면하고 건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게 될 아프리카 농업학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농업을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답지한다면 보람찬 그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내 자신의 아픔은 크지만 남의 아픔은 안보이고, 내 탓은 없지만 남의 탓만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보살행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나투신 화신임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과 복지를 실천하는 것 또한 진정한 지혜의 발현이며 대승보살의 수행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혜자스님과 108순례단 회원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무량한 복덕의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0월 8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 승